

민주 12월 전당대회 물밑전쟁

손대표, 10월 중순 대표직 사퇴 검토

정동영·정세균 “야권통합 우선돼야”

당내부선 당권경쟁 조기 점화 우려

민주당이 오는 12월 11일 전당대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12월 초순 개최된다면 손학규 대표는 11월 중순께 사퇴해야 할 전망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당권 경쟁이 초기에 점화된다면 지지부진한 액션 대통합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7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는 12월 11일 전당대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으며 장소는 잠시 학생체육관이 유

력하다”며 “조만간 가계약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손학규 대표 핵심 측근은 “오는 12월 초순 전당대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11월 말 전당대회가 개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손대표는 오는 10월 26일 재보궐 선거 직후, 대표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오는 12월 전당대회 개최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 그동안 오리무중이었던 대권 및 당권 구도도 점차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즉, 당권

주자들의 면모가 점차 드러나면서 대권 주자와의 합중연횡이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원내의 당권 주자 캠프 관계자는 “12월 초순 전당대회 개최는 빠르지도 늦지도 않아 적당한 것 같다”며 “당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으며 다만 당권 주자와 대권 주자와의 복잡한 연대 방정식이 숙제로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기에 당권 경쟁이 점화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은 그렇지 않아도 지지부진한 액션 대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개최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당대회 문제를 급증 제기됐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야권 통합 없이는 총선에서 신

승(辛勝) 할 수는 있으나 역사를 바꿀 수 없다”며 “민주당은 전대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액션 통합을 위해 온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이번 전당대회는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가 돼야지 민주당만의 전당대회가 폐선 안 된다”며 “당이 중심을 잡고 통합을 위한 전대가 되도록 선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인사들이 영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강연회와 당원 간담회를 잇달아 가지고 있어, 전당대회 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면서 궁극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떨어뜨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파업현장 조폭 투입 금지

민주 경비법 개정안 추진

민주당은 노사분규 현장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비법 개정에 나섰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경비법 개정안은 용역경비 업무에 조직폭력배를 투입하지 못하도록 했고, 무허가 업주에게 경비 업무를 맡기지 못하도록 했다. 또 용역경비 원은 반드시 명찰을 착용하도록 했고, 특히 파업 중인 노동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신 등을 노출해서 공포심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나 6대 민생현안을 논의한 지 한달이 됐지만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野 대권후보 ‘孫-文 구도’ 가시화

문재인 지지율 손 대표 바짝 뒤쫓아 존재감 부상

문재인 노루현 재단 이사장이 액션 통합을 기초로 정치권 중심에 진입하면서 액션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손학규·문재인 대결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 이사장은 지난 4·27 재보궐 선거 이후,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를 제치고 친노 진영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은 물론, 최근 액션의 대선 주자군에 대한 지지를 여론조사에서 손학규 대표를 바짝 뒤쫓으며 존

재감을 높이고 있다.

반면, 손 대표는 4·27 재보선 직후, 각종 당내외 현안에서 차별화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당원들로부터의 지지율이 10% 대로 하락하는 등 오히려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손 대표가 액션 내부에서 불고 있는 ‘문재인 대방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손 대표 측에서는 상황에 따

라 ‘일회일비’ 하기보다는 ‘민생진보’에 매진, 진정성 확보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액션 대통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액션의 대표 주자로서의 입지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손 대표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합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밝혀왔다”며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해 희생과 헌신 정신으로 액션 통합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 이사장의 급부상에 대해서 손 대표는 경제보다는 함께 관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 핵심 인사는 “문 이사장이 뜻에 액션 관이 커져면서 국민적 관심도 커질 수 있다”며 “액션의 통합과 선의의 경쟁이 활성화된다면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오히려 더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문 이사장의 바람은 경우에 따라 태풍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손 대표가 보다 적극적으로 당내외 현안에 몸을 던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봇이나 틀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차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차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 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엔지 방수, 비단재 전문생산업체
이엔지 미화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2001인증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DALM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품종으로 꽤 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 일	영업 시간	성 인(중학생 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5세~7세)	평 일	영업 시간	성 인(중학생 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
문의

062) 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